

“살인마까지 해봤지만 더 다양한 역 맡고 싶어”



배우 김승대(36·사진)가 공연마다 다른 얼굴로 등장해 화제다. 중국 전통 연극에 등장하는 변검(變檢?) 수준이다. 연극 'Q' (7월3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연쇄 살인마였다가, 동성애를 다룬 '베어 더 뮤지컬'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연출 이재준) 재공연에선 '잘 나가는 고등학생(제이슨)'으로 변신한다. 2006년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로 데뷔한

후 '천의 얼굴'을 뽐내왔다. 뮤지컬 '유린타운'의 천진난만한 '비비 스트롱', 뮤지컬 '그날들'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무영' 등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서 격변의 삶을 사는 파란만장한 인물을 오갔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황후 엘리자벳의 고민 많은 아들인 루돌프, 뮤지컬 '영웅'에서 근엄하고 진중한 안중근,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호기심 많고 호탕한

‘천의 얼굴’ 김승대 중국 전통 연극 ‘Q’에 등장

성격이나 의문스러운 사건에 휩쓸리는 병장 김수혁, 연극 '웃음의 대학'에서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웃음을 사수하려는 극작가... 하나의 카테고리로는 쫄 수 없는 다양한 역들이다.

최근 대학로에서 만난 김승대는 "주변에서 이런 전문 이미지를 가져야하지 않겠냐는 조언을 하지만 아직은 다양한 역을 맡고 싶다"며 도전의식을 보였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하나의 이미지로 굳혀지고 싶지는 않다."

무대에 선지 10년, 웬만한 역은 다 맡아 봤다. 그동안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맹목적인 악역은 맡지 못했지만 연극 'Q'를 통해 '살인마'로 출연하며 연기의 폭을 넓혔다.

변신의 힘은 '동안'도 한몫한다. 주변에서 "어려보여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마냥 탐탁치 않다. "나이에 맞는 역을 하고 싶다"는 그는 "나이가 들어갈 텐데 어린 역만 맡다보면 한 순간에 소외될 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있다.

"얼굴이 동안이다 보니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줄 역을 맡을 기회가 적다. 그 나

이대에서 나오는 연륜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고민은 캐릭터의 깊이감으로 전환된다. '베어 더 뮤지컬'에서 진짜 나이와 스무살이나 어린 제이슨을 맡았지만 그의 연기가 공감 가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라이선스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남부 가톨릭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기와 인간애를 다룬다. 세실리아 기숙학교의 잘생긴 김가 '제이슨'과 그의 비밀스런 남자친구이자 내성적인 성격인 '피터'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중심축이다.

데뷔작인 '지킬앤하이드'에서 인연을 맺은 원미술 음악감독의 추천으로 이 뮤지컬 재연에 합류하게 된 김승대는 "제 나이를 생각하고 보면 어색할 수 있지만 무대에서 김승대는 제이슨으로 완벽하게 변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9월 4일까지, 6만 6000~8만18000원. 쇼플레이·마케팅컴퍼니 아젠. 1588-5212

/이성주 기자



KBS 국악한마당 오늘 고창서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며 사랑받고 있는 'KBS국악한마당'이 고창을 찾아온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KBS전주방송총국과 16일 오후 4시 문화의전당에서 'KBS 국악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방송녹화를 위한 공연이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고창의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국악예술단 고창'의 '고창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송순섭 명창의 적벽가 중 '싸움터령', 소고춤, 민요, 피리, 삼도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다음 달 23일 낮 12시 10분 KBS 1TV에서 방송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상설공연 예술가·단체 공모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새만금방조제 상설거리공연인 '바다 위의 작은 무대'에 참가할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자격기준은 전라북도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활동내역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새만금방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소통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예술, 무용, 퍼포먼스 등을 공연할 단체를 공모 후 실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7월~9월 매주 토요일 15회에 걸쳐 무대에 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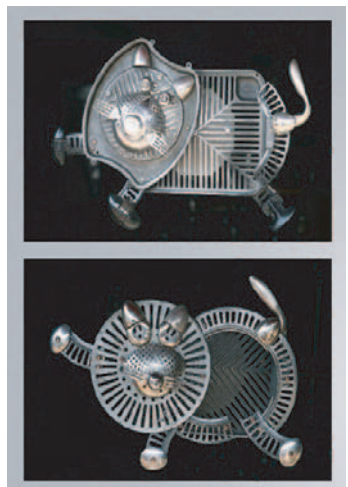
/정해은 기자



‘환경과 예술의 조화’

19일 박인선 정크아트전

박인선 작가의 정크아트전이 오는 19일까지 고흥미술관 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정크아트는 생활주변에서 나온 부산물인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소재로 제작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는 폐철, 알루미늄, 페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활용해 용접하고 볼트로 결합시켜 부엉이, 아기호랑이, 병정놀이, 로봇 등의 예술조형물로 승화시켰다.



정크아트 속 삼겹살 불판은 어느 누군가에게 생계를 이어가는 필수품,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조리의 도구이지만 작가의 기발한 발상 전환으로 부엉이 얼굴과 호랑이 몸통으로 재탄생 되었다.

작가는 "나에게 있어서 정크아트는 노동의 소중함과 색다른 경험을 맛보게 했다. 시대정신의 가치도 실감나게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절실한 과제를 찾아내고 어떤 목표점을 지향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인선 작가는 환경과 예술을 조화시키는 작업으로 2014년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정크아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프랑스 공연 국립무용단 ‘묵향’ 매진사례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 전속단체 국립무용단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담은 대표작 '묵향(墨香)'과 '시간의 나이'로 프랑스 무대에 진출했다.

지난 8~9일 프랑스 리옹 레뉴 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에서 '묵향'을 성공적으로 공연한 데 이어, 16~24일 파리에 위치한 샤오국립극장 대극장 무대에 '시간의 나이'를 올린다.

2003년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도미니크 델로르 예술감독이 부임하면서 대형 무용작품 초청이 많아졌다.

국립극장은 "이번 '묵향' 초청도 아시아 무용작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온 델로르 예술감독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귀렘했다.

'묵향'은 최현의 '군자무'를 바탕으로 윤성주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안무하고, 디자이너 정구호가 연출·디자인을 맡아 2013년 초연됐다.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였다. 지난 2월 '홍콩아트페스티벌'에 한국무용작품 최초로 초청, 호평 속에 전회 매진됐다.

리옹에서도 양일간 5000여명이 '묵향'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델로르 예술감독은 "한국의 테크놀로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낯설다. '묵향'은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섞여있고 섬세함과 유연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무용평론가 에미넬 부제는 주간지 '텔레라미'를 통해 "우아함과 기술적 기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춤"이라고 평했다. /이성주 기자

고창 '도리화 귀경가세' 특별출연진 공개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가 한옥상설공연 '도리화 귀경가세(연출 남기성)' 공연에 등장하는 특별출연진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공연에서는 금희복춤의 배관호 명인, 동래학춤의 이광호 명인 등이 등장해 관객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보존회에 따르면 앞으로 한량무 강동욱(6월 18일), 진도북춤 임성준(7월2일), 색소폰연주 유근수(7월9일), 좌도부들상모 김계진(7월16일), 통영문동북춤 이강용(7월23일), 채상소고춤 이동현(7월30일), 교방굿거리 김미선(8월6일), 고성문동북춤 허창열(8월13일), 태평무 서정숙(8월20일), 부포놀이 방송환(9월3일), 보릿대춤 정승현(9월10일), 허튼덧매기 남기성(9월24일) 명인이 '도리화 귀경가세' 특별출연자로 무대에 설 계획이다.

고창농악보존회 구재연 사무국장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희자에게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특별출연을 기획했다"며 "출연진 대부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인들이다 '도리화 귀경가세' 공연팀과의 시너지가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한옥지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고창 대표작인 '도리화 귀경가세'는 고창 출신의 판소리 이르기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그리움과 예술혼을 담은 '버라이어티 감성음악'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도리화 귀경가세'는 오는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고창읍성 내아에서 펼쳐진다. 7~8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금요일에도 공연이 펼쳐진다. 예매는 인터파크(<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05730>)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16일)

<p>▷쥐띠 48년생: 욕심을 버리고 때를 기다려라. 60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니 미리 신경써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72년생: 큰 울적임은 오히려 불리하다. 84년생: 뜻밖의 재앙이 따르는 운이다.</p>	<p>▷소띠 49년생: 호지부지 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 61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73년생: 실물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남매가 따르니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p>	<p>▷호랑이띠 50년생: 반길 반흥의 운이다. 62년생: 무난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운이다. 74년생: 무심코 한 말로 인해 큰 파장이 뒤따르니 말이 많을수록 쓸 말의 적은 법임을 잊지 마라.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p>	<p>▷토끼띠 51년생: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좋은 운. 7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주의하라. 8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이다.</p>
<p>▷용띠 52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보다는 동성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64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설이 따르는 운. 76년생: 이미 운은 안 있으나 게으름이 발목을 잡는 꼴. 88년생: 지금은 내실을 다지며 노력해야 하는 운.</p>	<p>▷뱀띠 5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5년생: 화내는 것도 잠시이다. 77년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봐도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없으니 묵묵히 노력하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주 막힘이 생기는 운.</p>	<p>▷말띠 54년생: 정신이 산만하니 집중하기 어려운 운. 66년생: 시비수가 따르니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과 말을 섞지 마라. 78년생: 손재수가 생기는 운이다. 90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운.</p>	<p>▷양띠 55년생: 마음이 산만한 운. 67년생: 사람과의 모임을 갖거나 식복은 있으나 많은 말은 삼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지출이 심해지는 운. 91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부득이하게 출퇴근 일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68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80년생: 주변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 92년생: 진퇴양난의 운이다.</p>	<p>▷닭띠 57년생: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말고 옆의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69년생: 양보와 타협만이 화합의 길임을 잊지 마라. 81년생: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지 않다. 93년생: 출행하면 디치거나 아플 수 있다.</p>	<p>▷개띠 46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 58년생: 일이 무겁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되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구분이 필요하다. 70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다. 82년생: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p>	<p>▷돼지띠 47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59년생: 동기간과 불화가 생기는 운. 71년생: 인덕을 볼 수 없는 운. 83년생: 성실함으로 진지하게 임하라.</p>